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신고하면 공정위, 포상금 최대 5억원 지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한 신고자에게 내년부터 최고 5억원 가량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작년에 도입한 3배 손해배상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3배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들 4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대상으로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할 경우 증거 수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당 단가인하나 기술

유용 등의 행위는 거래단절이나 보복조치를 우려해 하도급업체 측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거래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포상금 최고상한액은 5억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포상금액 한도 및 산출방법은 비슷한 제도가 시행 중인 공정거래법을 참조해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한다.

이미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 중인 담합의 경우 지급 기본액과 증거수준 가중치(최상 100%·상 80%·중 50%·하 30%)를 곱해 포상금을 결정한다. 최고 한도액은 30억원이다. /연합뉴스

광주는 아파트 도시

주거용 건축물중 72.8% 차지해 전국 1위

전남 단독주택 비율 51.7% 전국 최고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선 광주시청 연면적의 78배에 달하는 건축물이 새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용도별 면적 비율 가운데 아파트는 광주가, 단독주택은 전남이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4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3년 전국 건축물 동수·연면적’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건축물 동수는 전년보다 718동(0.51%) 증가한 14만397동, 연면적은 277만5513㎡(3.25%) 늘어난 8803만5227㎡로 집계됐다. 전남의 건축물 동수도 전년보다 544동(0.90%) 늘어난 61만1972동, 연면적은 398만6521㎡(2.95%) 증가한 1억3882만6082㎡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에서 지난해 증가한 건축물 연면적 676만2034㎡는 광주시

청 연면적(8만7170㎡)의 78배에 달한다.

광주는 주거용 건물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적으로 주거용 건물 중 아파트의 비중은 60.6%였지만 광주는 72.8%(3571만4000㎡)에 이르러 주거 형태로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69.3%), 인천(67.6%)이 뒤를 이었다. 전남의 주거용 건축물 면적 비율은 전체 건축물 중 55.7%(4907만7000㎡)로 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전남은 주거용 건물 중 단독주택의 비율이 51.7%(2996만600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큰 격차를 보이며 제주(43.9%)와 강원

(37.6%)이 뒤를 차지했다.

전체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 대비 0.44㎡ 증가(65.59㎡→66.03㎡)한 가운데 광주(33.32㎡)는 주거용 1인 면적이 세종(37.76㎡)과 경북(37.48㎡)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조사됐다. 1인당 주거 면적이 가장 작은 곳은 함평으로, 18.14㎡에 불과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부산의 ‘해운대 위브더제니스’로 80층, 299.9m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2차 아파트가 32층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에서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의 중흥S-클래스 1단지 아파트가 30층으로 최고층이었다.

세부적인 통계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은행 ‘꺾기’ 뿌리 뽑는다

금융당국 처벌 강화...과태료 건당 2500만원

3월부터 은행이 중소기업 등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민원발생 평가 등급도 하향 조정하고 테마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꺾기 규제 근거를 강화한 은행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꺾기 행위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관행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사실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으로는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보험이나 펀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 그 비율이 1%가 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한다.

중소기업 대표자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금지됐다. 기존에는 이들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시 감독이 어려워 처벌되지 않았다. 은행이 상환 우선권을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도 처벌된다. 상환 우선권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지만, 주주가 회사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다.

이런 꺾기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대폭 부과된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해당 은행에는 5000만원(직원 1000만원)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앞으로 꺾기 한 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2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꺾기 금액이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된다.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이나 펀드 등에 대한 꺾기와 함께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의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지난해 중소기업 359곳을 대상으로 한 꺾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4곳 중 1곳(23.7%)은 최근 2년간 꺾기 피해를 봤다. 특히 49인 이하 중소기업(25.0%)이나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24.9%)일수록 피해가 컸다. 꺾기 상품(복수응답)으로는 예·적금(74.1%)이 제일 많지만, 보험·공제(41.2%)와 펀드(28.2%)의 비중도 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4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열린 김중용 광주공장장 특별교육이 끝난 뒤 김 공장장과 교육생이 모여 ‘새로운 출발’을 결의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기아차 제공>

“새출발 원년, 글로벌 리딩 공장 도약하자”

기아차 광주공장 공장장 특별교육 소통경영 시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중용 부사장)이 4일부터 10차례에 걸쳐 ‘광주공장의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공장장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교육은 지난해 62만대 증산체제로 성장한 광주공장이 공장장과 임직원 간의 소통을 통해 경영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올해 광주공장 사업목표 달성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첫 시간인 4일 김 공장장은 2013년 경영성과와 2014년 경영환경, 기아차 광주공장의 현주소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임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공장장은 이 자리에서 “기아차 임직원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아차가 거둔 전체생산량 283만대 중 국내공장에서 160만대를 생산해 냈지만 HPV(Hour per Vehicle /차 1

대를 만드는 시간)이나 가동률이 해외공장 대비 열세에 놓여 있다”며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공장장은 올해를 광주공장의 새로운 출발원년으로 삼고, 2014년 광주공장의 추진목표를 ‘양적 외형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질적인 내부 경쟁력 강화’로 설정했다. 실현 방안으로는 ▲역대 최고 생산달성 ▲품질개척 ▲생산현장 의식향상을 꼽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대구 엑스코에서 지난해 열렸던 대구국제섬유박람회 효성 전시관 모습.

5~7일 대구국제섬유박람회 참가

효성, 고기능성 원사 글로벌 마케팅

첨단신소재 기업 효성이 5일부터 7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에 스파텍스 섬유를 세계 1위 브랜드인 크레오라(Creora) 등 고기능성 원사를 대거 전시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스판텍스는 ‘섬유의 반도체’로 불리는 고부가 기능성 섬유로, 폴리우레탄을 주성분으로 해 기존 고무실의 3배 강도를 지닌다. 원상 회복률이 97%에 달할 정도로 신축성이 좋아 속옷, 수영복, 스타킹, 기저귀 등 거의 모든 의류제품에 사용된다. 크레오라의 스파텍스 시장 점유율은

30%에 이른다. 효성은 1월에 내놓은 고기능성·고감성 크레오라 종속 브랜드인 크레오라 에코소프트, 크레오라 컬러플러스, 크레오라 컴포트 등도 이번 박람회에 선보인다. 또 로빅, 아쿠아-X, 코트나, 에어로기어 등 고기능성 나이론·폴리에스터 원사도 내놓는다. 조현준 효성 섬유PG장(사장)은 “의료용 섬유 원사부터 알래스, 탠스 등 산업용 원사까지 고부가 제품의 브랜드 파워를 높여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 죽호학원 장학금

고교생 90명에 전달

금호아시아나그룹이 4일 학교법인 죽호학원에서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문화재단은 이날 금호고등학교, 광주중앙여고, 금파공고의 성적우수자 및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 총 9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박삼구 그룹회장은 격려사에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며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크게 꿈을 키우고, 부단히 노력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호그룹은 지난 1959년 죽호학원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육성 사업을 펼쳐왔으며 지난해에도 성적우수자 및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014년 죽호학원 장학증서 수여식

황칠나라
DENDO-PANAX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황칠나라 식당모집

061 864 5788

황칠 전문 판매점과 더불어 기존식당에서 황칠제품을 활용하여 신매뉴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www.황칠나라.kr



명품황칠요리 황칠(愛)비법

황칠(愛)비법 진액은 식품첨가물입니다. 파우치 형태로 제작되어 쉽게 식품에 첨가할 수 있으며, 특히 육류나 어류 및 장류의 잡내를 없애주며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과 영양
사과 영양
어느것도 놓칠 수 없는 황칠나라만의 고집!!!